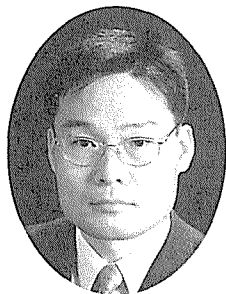


# '99년 국내석유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신 용 삼  
〈 현대정유 업무팀 차장 〉

## 1. 머리말

지난 '98년도는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외환위기라는 국난을 극복키 위해 초석을 다진 한해였다. 사상 최대규모의 399억불 무역흑자와 89억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가용외환보유고를 488억불('98.12월)로 확충한 것은 역사상 어려운 고비마다 대동단결하여 시련을 극복해온 우리국민의 저력을 발휘한 때문일 것이다.

이에 힘입어 우리정부는 금년도에도 비전있는 청사진을 아래〈표-1〉과 같이 제시하고 있어서, 제반 경제활동에 활력을 배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표-1〉 거시경제지표

(단위:억불)

	'97년도	'98년도(잠정)	'99년도(전망)
경상수지	△82	399	200
외국인 투자유치	69	89	150
가용외환보유고	89	488	550
경제성장률(%)	5.5	△5.5	2.0
소비자물가상승률(%)	4.5	7.5	3.0

주) 정부 발표 「'99 경제정책 방향」 인용

'98년중 석유산업은 주유소업 대외개방('98. 5. 8), 석유정제업 참여자유화 및 대외개방 단행('98. 10. 1)으로 일부 LPG부문을 제외하고는 완전자유화 추진일정이 완결되었으며, LNG 및 LPG 판매가격 산정방식이 각각 '98. 8. 1, '99. 1. 1부로 3개월단위 유가연동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석유산업의 주요여건변화 및 '99년도 국내석유시장 전망을 고찰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 2. 석유산업의 주요여건변화 및 '99. 국내석유시장 전망

지난 '98년도는 경기침체에 따른 국내석유소비 급감 및 국제석유시장의 정제마진 하락 등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 및 외국인 투자유치, 그리고 실물경제의 회복조짐 등에 힘입어 달러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수입원유비

의 원가비중이 매우 높은 국내 정유사의 경우 '97년도 수준이상의 경영실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금년도에는 어떤 경영환경이 석유산업을 맞이할 것인가?

### (1) 국제원유가 전망

'98년도에는 엘니뇨에 따른 지구온난화, 아시아지역의 경제위기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 이라크 석유수출물량 증대, OPEC의 생산상한 증대 등의 요인으로 원유가격이 폭락하였다.

'99년도에는 아시아 경제위기가 다소 진정되고, 라니냐 현상에 따른 흑화가능성도 예상되며, OPEC의 생산억제정책이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대체로 전년대비 약 1\$/B내의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표-2〉 국제원유가 전망

	(단위: \$/B)		
	'97	'98	'99
Dubai	18.17	12.15	13~14

주) 석유공사, ESAI등 주요기관의 전망치 인용

저유가는 상류부문 투자비율이 높은 정유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경질원유 vs 중질원유의 가격차이, 경질석유제품 vs 중질석유제품의 가격차이를 축소시킴으로써 고도화시설 투자비율이 높은 정유사의 손익을 악화시키고 있다.

### (2) 달러환율 전망

환율이 급등한 '97년도와 환율이 크게 하락한 '98년도는 거액의 환차손과 환차익을 각각 발생시켜 매우 대조적이었다. 저유가가 IMF 관리체제하의 우리나라를 희생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면, '98년도의 환율하락은 국내 정유사에 있어

서 가뭄속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것이었다.

〈표-3〉 달러환율 전망

	(단위: 원/\$)		
	'97말	'98말	'99말
\$ 환율	1,485	1,207	1,058*

주) \*정부의 '99년도 평균환율 예상

'99년도에는 정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국제수지 및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99. 1. 1 EURO 공식출범에 따른 3대 기축통화체제 등장 및 미국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할 경우 '98말 환율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많은 변수들이 가변적이고 경제분석기관들이 내년 예상환율을 대체로 1,200~1,300원/\$ 대로 보고 있어 한마디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 (3) 외자유치 및 합병 전망

저유가기조의 장기화, 수요부진 등에 따른 외부환경 악화로 메이저를 비롯한 국제석유회사들의 수익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메이저들은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및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을 달성키위해 석유업계 사상최대규모의 메이저간 합병이 전격 발표되므로써 석유업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표-4〉 '98년도 메이저간 합병발표

합병발표일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금액(억\$)
'98. 8. 11	BP	Amoco	540
'98. 12. 1	Exxon	Mobil	754
'98. 12. 1	Total	Petro Fina	127

국내 석유업계에서는 '98. 9월 발표된 5대그룹 사업구조조정방안의 일환으로서 현대정유가 한화

에너지 인수를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UAE의 IPIC사로부터 약 5억불의 외자유치를 추진중에 있다.

#### (4) 석유수출입업자의 등장

'98년도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자가소비자 아닌 국내판매용 석유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기 시작한 첫해이었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98년도 총도입물량은 많지 않은 수준이지만 타이거 석유만 하여도 '99년 430천Bbl, 2000년 670천Bbl 등으로 수입물량을 증대해 나갈 계획이며, 신규 석유수출입업자의 등장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향후 석유수출입업자의 활동이 국내 석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5> '98년도 석유수출입업자의 제품도입물량 (단위:천Bbl)

수출업 등록일	회사명	유종	'98.도입물량	비고
'97. 5. 27	웅진무역상사	휘발유	4	수입물량없음
'98. 3. 7	유 유 실 업	-	-	
'98. 9. 3	타이거 석유(주)	경유	108	

#### (5) 국내석유수요 전망

'98년도 석유제품 내수판매물량은 679백만Bbl로서 '97년(794백만Bbl) 대비 14.4% 감소하였으며, 주요 연료유인 휘발유, 등유, 경유, B-C유의 내수물량만 고려할 경우 356백만Bbl로서 '97년(484백만Bbl) 대비 26.3% 감소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도래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와 엘니뇨 현상에 따른 이상온난화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제 경기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99년도의 국내석유수요 전망은 어떠한 것인가?

'99년 우리경제는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 연간 2%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라니나현상에 따른 난방용 수요의 증가로 '99년 국내 석유수요는 지난해의 침체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국내 내수 시장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6> '99년도 석유수요 전망(산업자원부)

(단위:천Bbl)

	내수	방카링	수출	계
1998	679,320 (-14.4)	47,000 (1.9)	288,140 (23.9)	1,014,460 (-5.4)
1999	692,380 (1.9)	48,650 (3.5)	305,890 (6.2)	1,046,920 (3.2)

주 : ( )내는 전년대비 증감률

#### (6) 환경규제 강화 지속

정부에서는 대기오염 저감정책을 단계적, 연차적으로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으며, 정부의 시책은 생산 및 소비 측면에서 정유사에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친다.

'99년도에는 황함량이 1.0% 이하로 제한됨으로써 4.0% 중유가 내수시장에서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며, 7월에는 0.5% 중유 사용지역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표-7> 저유황 황함량 및 사용지역(시·군의 수)

	'99.1.	'99.7.	2000.7.	2001.7.	2002.7.	2003.7.
0.3% 사용지역	-	-	-	14	26	30
0.5% 사용지역	26	63	63	49	37	33

주) 기타 지역은 1.0% 중유 사용

한편, 산업체의 배출허용기준도 한단계 강화되었는 바, 배출량이 연료유에 포함되어 있는 황함

량에 크게 의존하는 SOx의 배출허용기준도 시설에 따라 한단계씩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내수시장의 중유수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대응방안

전술한 바와 같이 금년도 국내석유시장은 지난 '98년도에 비해서 경기회복 전망, 국내내수판매 증가 등 제반여건이 대체적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석유수출입업자의 제품도입물량 증가, 신규 석유수출입업자의 참입가능성, 외국기업의 국내 석유정제업 지분확대 및 유통부문 진출 가능성 등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시장경쟁이 보다 더 치열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 '98. 10월 석유정제업 대외개방을 마지막으로 석유산업의 완전자유화가 실현됨에 따라 국내석유시장 참여자의 대외경쟁력 제고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계제에서 국내산업이 더욱 성숙된 국면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까?

#### (1) 석유사업법상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판매업 등록요건의 충실한 이행 및 감독

석유산업은 각 부문별로 완전 자유화되었지만, 국내석유수급의 안정 등을 기하기 위해 적정수준의 저장시설 보유의무 등 등록요건을 두고 있다. 이는 자체사업의 유지를 위해서도, 또한 비상시 및 평상시 국내석유수급 원활화를 확보키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국내석유시장 참여자

의 완전한 의무이행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일례로 석유정제업자의 석유저장시설 보유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석유정제업에 대한 투자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것이다.

#### (2) 소비지정제주의 기초유지를 위한 원유 vs 제품의 관세율/기금 차등화

우리나라 거시경제지표의 중요한 부분을 점하고 있는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완제품보다는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 석유정제시설의 가동율을 높임으로써 국내 생산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측면의 배려가 요망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비산유국들은 국내석유수급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소비지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석유제품이 연산품이라는 특성 때문에 절실히 요구되는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경쟁국인 일본, 중국, 더 나아가 미국 및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원유와 제품간의 관세율을 <표-8>과 같이 차등 부과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정부의 '99년도 세제개편안 수립시 반드시 이러한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석유사업기금의 경우도 원유 vs 제품의 부과금액을 차등화함으로써 소비지정제주의 기초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8> 인접국가 및 주요국가 관세 현황

	일본(¥/ℓ)	중국(%)	미국(¢/ℓ)	유럽(%)	비고
원 유	215	1.5	5.25	2.3	
휘발유	1,400	9.0	52.50	5.6	2.4~10배
등 유	570	9.0	10.50	6.0	2~4배
경 유	1,270	6.0	52.50	3.5	1.5~10배
중 유	2,400	12.0	10.50	3.5	1.5~12.2배

### (3) 불량제품 유통 사전방지 및 적정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품질검사 강화

'97~'98 두해를 끝냈던 웅진무역상사의 휘발유 수입건에서 본 바와같이 석유수입업자의 경우에는 품질보정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한 품질의 석유제품을 도입하고 품질수준을 유지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입장에서 품질미달 제품수입에 대비하여 수입경로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수입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 가야 할 것이다.

### (4) 에너지원간 형평성있는 조세체계 확립

현재 석유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특소세 및 교육세를 살펴볼 경우 지나치게 휘발유 및 경유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세계개편안 수립시에는 석유제품(연료유), 가스, 석탄, 전력 등을 총망라한 에너지원별 단위열량 등을 감안하여 형평성있고 중립성이 보장된 조세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 (5) 연료유 사용의 유연성 확보

현재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규제는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와 배출허용기준으로 이중 규제되고 있으며, 업무용 및 발전용 시설에 대한 청정연료(LNG, LPG) 사용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정유사가 공급할 수 있는 연료의 폭을 좁히게 되고, 특정 제품만을 다량 생산할 수 없는 정유산업의 특성상 유종간 수급불균형을 초래하

여 부족제품을 고가에 수입하고 잉여제품을 저가에 수출하게 되어 국제수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기업체에 대해서는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를 폐지하고 배출허용기준만으로 규제하여 소비자가 연료를 청정연료, 저황중유 또는 고허중유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연료유 다량소비처에서 고허연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연탈황시설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인 배려를 할 경우 헐값으로 수출되고 있는 고허연료유의 국내소비가 가능하므로 수급불균형 해소는 물론 국제수지 개선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 용 어 예 설

### 21세기의 시작

새로운 천년(밀레니엄)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많은 사람은 대체로 21세기 시작을 2000년부터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99년을 21세기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라고 자연스럽게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21세기의 시작은 2001년부터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달력의 첫 시작은 AD 1년 1월 1일이며 첫 밀레니엄은 AD 1000년 12월 31일까지였다.

100년을 한 단위로 하는 세기의 시작과 끝도 1년부터 100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이 갖는 상징성과 상업적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내년을 21세기와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이라며 앞당겨 생각하고 있다.

영국이 건설 중인 밀레니엄 돔은 올해 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파티 2000도 21세기 시작을 겨냥한 행사다.

이미 100년 전 20세기의 시작을 놓고 독일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새로운 세기를 알리는 행사를 1900년에 실시한 전례가 있다.

반면 영국은 독일의 20세기 시작 선포를 인정하지 않고 1901년에 따로 거행했다.

21세기와 새로운 밀레니엄 개시를 앞두고 세계시간의 표준이 되는 영국의 그리니치천문대는 2001년이 새로운 세기의 시작이라는 주장을 고수하지만 정작 2000년에 실시하는 경축행사는 동참한다.